연이은 하락장에 반대매매 공포감… 투자자 손실 우려 커져

코스피 등 글로벌 증시 낙폭 커져
한달 새 코덱스 레버리지 45.36%↓
신용거래융자 잔고 28조 넘어서

#.직장인 김민수씨(31)는 올 6월 코스피20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약 5000만원을 투자했다. 당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50만원을 넘어 300만원에 가까워질 때였다. 5개월째에 접어든 김 씨의 투자상품 평가 수익률은 -72%에 달한다. 김 씨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추는 '물타기'는 물론이고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는 이른바 '손절'도 못한 채 패닉에 빠졌다. 김 씨는 "하락장에서 수익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주식시장이 무서워진다"고 말했다.

미국발 '블루웨이브'(민주당 압승)에 국내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빚을 내 투자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투자자들과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만큼,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개인은 코스피 200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를 1조2201억원 순매수했다. 개인 순매수액 기준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어 코스닥 150지수의 일간 변동률을 양의 2배수로 따르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두 번째로 많은 9411억원 순매수했다.

'KODEX 반도체레버리지'(9위·2572억원),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11위·2113억원) 등 반도체 업종 레버리지 상품도 순매수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단일종목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넉 달여 만에 60% 안팎의 손실을 냈다. /따능 AI 생성 이미지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수석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낙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계속되면서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 순유입이 많았다"며 "테마별로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차전지,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원자력 등의 순유입 규모가 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블루웨이브' 충격에 코스피가 급락하고, 반도체 '투톱' 주가가 급락하면서 수익률이 뚝 떨어지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들은 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구조인 만큼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배가된다.

실제 이 기간 KODEX 레버리지는 45.36%,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는 48.79% 각각 떨어졌다.

반면에 코스피 200지수 하락 시 2배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곱버스' ETF가 수익률 상위권에 줄줄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7715억원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으로, 개인투자자의 빚투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시장에서는 증시 조정이 이어질 경우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폭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거래 투자자는 담보로 잡힌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추가 반대매매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IBK투자증권
달러·엔화 투자상품 확대

IBKS 일본국채신탁 등 3종 선봬

IBK투자증권은 IBKS 외화MMT(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형), IBKS 달러 셀앤바이(SELL-BUY) 신탁(채권형·예금형), IBKS 일본국채신탁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외화MMT는 달러 환전 없이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과 예금, 발행어음 등 단기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달러 셀앤바이 신탁은 달러를 원화로 전환해 채권이나 정기예금 등에 운용한 뒤 만기에 달러로 되사는 구조다. 스왑포인트(Swap Point)에 따른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국채신탁은 별도 환전이나 해외 계좌 개설 없이 원화로 일본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환헤지를 하지 않아 엔화 가치 변동이 수익률에 반영된다.

이번 출시는 IBK투자증권이 신탁시스템 재구축을 마치고 외화 수탁·운용 체계를 갖춘 데 따른 것이다. /김아영 기자 aykim@

석 달새 우선주 평균 할인율 1.5%p↑… "접근 신중해야"

할인 폭 상위 10개 종목 평균 72.4%
주주환원 제한적… 저평가 해소 과제

#. 직장인 허모씨(31·여)는 2023년 현대차 주식을 사면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1대2~3 비율로 담았다. 우선주로 사면 배당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하지만 올해 현대차 주가가 로봇 기대감에 치솟았을 때 우선주 수익률은 보통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금은 사정이 거꾸로다. 7월 말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현대차 보통주가 28.1% 떨어지는 동안 현대차2우B는 25.2% 하락했다. 보통주 대비 할인율은 48.2%에서 46.1%로 좁혀졌지만, 우선주 값이 오른 건 아니다.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주는 보통주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과 청산 시 잔여 재산 분배 등 청구권을 보통주보다 먼저 보장받는 주식이다.

8일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7월 말 기준 할인 폭이 가장 크다고 꼽은 우선주 10개의 평균 할인율은 10월 말 종가 기준 72.4%로, 7월 말(70.9%)보다 1.5%포인트 커졌다. 10개 중 7개 종목의 할인 폭이 벌어졌다. 7월 말과 지난달 30일 모두 상장된 코스피 우선주 108개 가운데 보통주보다 싸게 거래되던 76개의 할인율 변화 중간값도 -0.4%포인트에 그쳤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할인율이 줄어든 종목도 대부분 허씨의 현대차 우선주와 같은 경우였다. 108개 중 할인율이 줄어든 42개 가운데 31개(74%)는 우선주 가격도 떨어졌지만 보통주가 더 크게 떨어지면서 할인율만 줄었다. 포럼이 꼽은 10개 중 할인율이 줄어든 3개(LG전자우·두산2우B·미래에셋증권2우B)도 모두 이 경우였다. 우선주 가격이 실제로 올라 할인이 좁혀진 종목은 11개에 불과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다. 할인율은 7월 말 27.2%에서 지난달 30일 22.2%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선주 주가도 9.0% 떨어졌다. 보통주가 14.9% 떨어지면서 격차가 좁혀졌을 뿐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자사주 매입 때 우선주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할인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건 대주주와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위해 보통주만 대량 보유하다 보니, 주주환원도 보통주 매입·소각에 쏠려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규식 변호사(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는 "기업 입장에서 우선주는 배당 부담이 큰 반면 주가는 저평가돼 있어, 자사주 소각 시 우선주를 매입하는 것이 자본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우선주 주주를 배제한 채 보통주만 소각하는 것은 명백한 주주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기대만으로 접근하기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패시브 및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보통주 투자 성향이 높고, 우선주가 유동성이 낮다는 점에서 변동성 높은 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도도 낮은 편으로 보인다"며 "자사주 매입도 주로 보통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주 디스카운트가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싸다는 관점에서 디스카운트 감소를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아영 기자 aykim@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AI 페스티벌' 성료

미래에셋증권은 중국 선전에서 대학생 대상 인공지능(AI) 공모전 '글로벌 AI 페스티벌 2026'의 결선 및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공동 주최하고 선전시 치엔하이관리국 등이 지원한 이 행사에는 중국과 홍콩에서 총 100개 팀이 참여했다.

최종 우승은 북경대학교 HSBC경영대학원 소속 'FindAlpha' 팀이 차지했다. 2위는 홍콩 지역 대학 연합팀 'Herguard'와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팀 'MiraeLens'가 이름을 올렸다.

김승욱 미래에셋증권 Global경영관리부문 대표는 "중국의 혁신 생태계와 미래에셋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해 젊은 인재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미래에셋 3.0'이 지향하는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금융당국,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한시적 면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일환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이 급락하면 투자자는 추가 담보를 내거나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런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쏟아져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담보비율은 빌린 돈에 비해 담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담보비율이 140%라면 대출금 100만원에 대해 140만원 이상의 담보를 확보한다는 뜻이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 투자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담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주가 급락기에는 담보가치가 떨어진 계좌가 늘면서 반대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다른 계좌의 담보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관련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돈을 빌린 고객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투자자의 반대매매를 일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 기준은 각 증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시 변동성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투협은 지난 9월 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등 신용거래 위험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모드락마당 '해담정원' 조성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니스프리 모음재단과 공동 조성한 정원 '모드락마당'을 6일부터 10일까지 제주 바람모루공원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제주정원문화박람회'에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약 1247㎡ 규모의 모드락마당은 이지스자산운용의 '해담정원'과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의 '퐁낭정원'으로 구성된다. '모드락'은 여럿이 한데 모여 있다는 뜻의 제주어다.

해담정원은 제주의 햇빛과 바다를 담는다는 의미로, 중산간 식생과 바다 경관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야간에는 반딧불이에서 착안한 태양광 조명을 활용해 자연과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표현했다.

/김아영 기자